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2. 16.(화) 17:10
(지면) 2025. 12. 17.(수) 조간

연말연시, 안심하고 즐기세요 정부가 더욱 촘촘히 지키겠습니다

-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12.16.)
-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12.19.~1.4.) 운영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6일(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 참석 : 행안·문체·국토부, 경찰·소방청, 17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28개 기관
-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변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금)부터 내년 1월 4일(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 근거 :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 * 성탄절(서울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서면), 타종(서울종로, 대구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아차산, 부산광안리, 울산간절곶, 강릉경포대, 여수향일암, 포항호미곶)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공연종사자 대상 ‘공연안전 설명회*’를 개최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교육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12.17.(서울), 12.18.(동대구) 총 2회 개최 예정

- 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 및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하고,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 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즐겁고 안전하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인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양기현	(044-205-5250)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62)
		담당자	사무관	허재훈	(044-205-5269)
담당 부서 (지역축제)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	책임자	과 장	박범수	(044-205-4240)
		담당자	사무관	김정근	(044-205-4248)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01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전



축제장, 공연장 등 방문 장소의
혼잡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확인해요

02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한 경우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오른쪽으로 통행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좁은 길, 비탈길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보행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위험이 느껴지면 신속하게
112 또는 119에 신고해요

03 군중 속에 감혔을 경우



아동을 동반한 경우,
안거나 목마를 태워 보호하세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뚝을 잡아
가슴을 보호하고 심 심 공간을 확보해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머리는 두팔로 감싸고,
다리는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동그렇게 말아 보호하세요